

정유기업, 석유제품 가격 재차 인상

국제유가 연일 최고가 경신 ... 휘발유 소비자가격 리터당 1410원 시대

정유기업들이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석유제품 가격을 또 올렸다.

정유업체에 따르면, SK, LG-Clatex정유, 현대Oil-Bank 등 주요 정유기업들은 정부의 석유 수입부과금 및 관세인하 조치에 따라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리터당 12원씩 인하한 지 1주일도 안돼 각 석유제품 가격을 리터당 5-11원 올렸다.

SK는 5월6일 0시를 기해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공장도가격을 리터당 1295원에서 1300원으로 5원 올렸으며 경유는 리터당 837원에서 846원으로 9원 인상했다.

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는 리터당 5원씩 올렸다.

LG-Caltex정유는 5월4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11원,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는 9원, 경유는 8원 올렸으며 현대Oil-Bank크는 5월6일부터 휘발유, 실내등유, 보일러등유는 각 5원, 경유는 10원 인상했다.

주요 정유기업들의 석유제품 공장도가격 일제 인상에 따라 일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각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도 비슷한 폭으로 동반 상승해 서울지역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410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SK 관계자는 “최근 국제유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지속함에 따라 이를 국내유가에 반영하면서 각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됐으며, 정유기업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없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가격 인상에 따라 국내 최대 정유기업인 SK는 2004년 들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7원 올랐으며 경유는 26원,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는 32원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.

<화학저널 2004/05/10>